



www.at.or.kr

베트남 농식품 수출품목 소매가격조사 7월



김



음료류



주류



제과류



면류



소스류



기타 가공식품



신선식품



7월 품목 및 원산지별 소매 가격 분석 - 베트남



1. 김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별 김 중량(1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2. 음료류 (과채 주스)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별 과채 주스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3. 면류 (라면)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별 라면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4. 주류 (맥주(캔))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별 맥주(캔)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5. 제과류 (비스킷류)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별 비스킷류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6. 소스류 (드레싱)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별 드레싱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 베트남 동역 원화 환산 시 KEB하나라은행 7월 31일자 환율을 기준으로 작성, 100베트남 동=4.93원



1. 김

2) 원산지 별 김 중량(10g) 당 가격 변동 추이



2. 음료류 (과채 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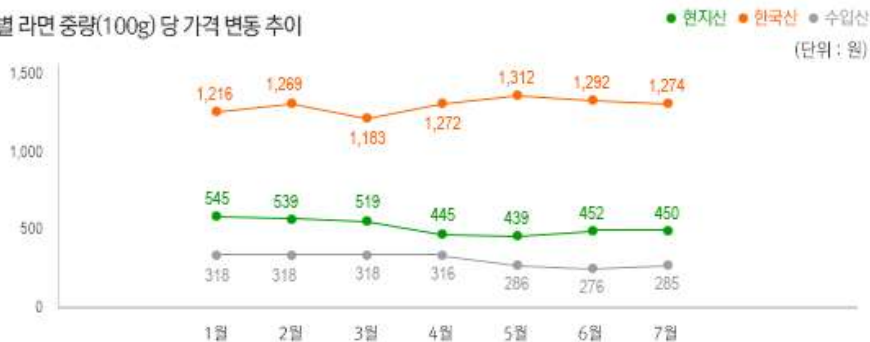
2) 원산지 별 과채 주스 중량(100ml) 당 가격 변동 추이



※ 5월의 경우 해당 수입 품목 조사되지 않음

3. 면류 (라면)

2) 원산지 별 라면 중량(100g) 당 가격 변동 추이



※ 베트남 동외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7월 31일자 환율을 기준으로 작성. 100베트남 동=4.93원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icultural & Food Trade Corporation

1~7월 월별 소매 가격 변동 추이 분석 - 베트남

4. 주류 (맥주(캔))

2) 원산지 별 맥주(캔) 중량(100ml) 당 가격 변동 추이



5. 제과류 (비스킷류)

2) 원산지 별 비스킷류 중량(100g) 당 가격 변동 추이



6. 소스류 (드레싱)

2) 원산지 별 드레싱 중량(100ml) 당 가격 변동 추이



※ 베트남 동외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7월 31일자 환율을 기준으로 작성, 100베트남 동=4.93원

음료류

수요 증가 ▲ “ 독특한 맛, 신선한맛을 녹차에 우려내보아요 ”

수입식품을 수입, 유통하는 CÔNG TY CỔ PHẦN PHA CHẾ VIỆT의 담당자 Mr. Leh Dinh에 따르면, 음료 분야에서는 녹차의 판매량이 높다고 전했다. 베트남 소비자들은 시원한 차(茶)음료를 즐겨 마시며, 특히 녹차에 익숙하다고 전했다. 소비층마다 녹차를 소비하는 이유는 다르다며 중장년층은 건강에 좋은 음료로 소비하나 젊은이들은 지방을 없애기 위한 다이어트 음료로 마신다고 분석했다. 특히, 젊은층에게는 녹차음료에도 과일향과 맛을 추가한 믹스음료 제품이 인기이며 앞으로도 유사제품에 대한 수요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산 녹차 음료도 해당 음료처럼 믹스 음료제품이 있다면 베트남에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녹차 음료]

수요 증가 ▲ “ 산뜻한 복숭아맛 음료 인기! ”

디저트 식자재를 수입하는 TIKIPHACHE의 대표자 Mr Vinh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커피, 밀크 티 프랜차이즈의 성행으로 음료베이스 식자재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도 커피전문점과 밀크티 전문점, 차 전문점으로 꾸준히 음료베이스를 납품하고 있으며 그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여름이 다가오자 복숭아맛 차 베이스의 수요가 가장 높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맛의 음료베이스를 추가적으로 소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프랑스산 음료베이스를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가격이 저렴하면서 고품질의 제품을 가장 선호한다고 전했다.



[복숭아맛 음료베이스]

기타 가공식품

수요 증가 ▲ “ 베트남 국민주류는 소주?! ”

한국 소주를 포함하여 수입주류를 유통하는 Soju Shop의 담당자 Mr Hai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소주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는 증류주 제품군을 주력 유통하지만 베트남인의 입맛에 소주가 알맞다고 여겨 소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사의 소주 소비층의 40%가 베트남 현지인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국산 소주는 설에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이때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그 외 기간에는 가격변동이 크게 없으며, 물류비용에 따라 달라질 뿐이라고 전했다. 한국산 소주는 맛이 깔끔하고 마시고 나서 뒷맛이 무겁지않아 선호한다는 소비자 평가가 다수라고 전했다.



[한국산 소주]

수요 증가 ▲ “ 자주 먹을 수 있는 홍삼 캔디로 건강 지키자! ”

한국산 홍삼제품군을 수입, 유통하는 Cửa Hàng N²의 담당자 Ms Dao에 따르면, 한국산 홍삼제품군으로 농축액, 정, 절편 등 다양한 상품군을 취급하지만 홍삼캔디류가 가장 판매율이 높다고 전했다. 농축액이나 정 제품은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부유층에서만 수요가 있어 판매가 꾸준하지는 않다고 전했다. 대신, 홍삼 캔디류는 품질에 비해 가격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소비자들에게서 구매빈도수가 높아 판매량이 높다고 전했다. 가격대 변동은 거의 없으며 꾸준히 판매되어 별도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산 홍삼캔디]